Question 42

우린 무엇이든 투하한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공정화물의장사는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임관한 공군 부사관 중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해 3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공정화물의장사라는 직책을 부여받게 된다.

화물의장은 '공정작전'에 투입될 차량, 탄약, 유류, 비상식량 등과 같은 장비 및 물자를 화물낙하산, 충격흡수재 등의 자재를 이용해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공정작전'에 투입될 장비 및 물자를 의장(포장)하는 군인을 '공정화물의장사'라고 하는데요. '공정작전'은 지상 전투부대에 장비 및 보급품 등을 항공기를 이용해 목표지역에 침투시키는 작전을 일컫습니다. 화물의장사들은 '공정작전'에 투입될 장비와 물자를 안전하게 의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작전에 온전히 활용되도록 안전 의장 필수

그렇다면, 화물을 안전하게 의장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공중에서 투하되는 장비나 물자는 항공기를 통해 목표지역으로 이동 후, 낙하산을 이용하여 목표지역에 투하되는데, 임무항공기가 비행도중 전술기동으로 인한 요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또

한, 투하된 장비와 물자가 낙하되어 지상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공정화물의장사들은 장비와 물자가 안전하게 투하되어 아군이 작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역할 분담으로 공정작전 완수

공정작전은 화물의장사와 적재사, 조종사, 공정통제사의 팀워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공정화물의장사가 투하될 장비와 물자를 의장하면, 적재사들은 정상투하에 문제가 없도록 항공기에 적재하고, 이를 다시 화물의장사가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수송기가 기지를 떠나 투하지역에 도착, 미리 작전지역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공정통제사가 항공기를 유도해 안전한 지점에 장비와 물자를 투하하는 것입니다.

작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 의장

공정작전은 작전지역에 장비와 보급품을 투하하는 작전입니다. 따라서 작전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어떤 물자라도 의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과 연료, 의류, 식료품, 탄약 등 종류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화물의장사들은 장비와 화물의 투하가 완료된 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품의 무게와 특성에 맞춰 화물의장 방법을 달리합니다. 보통 보급품의 무게에 따라 중장비(1,143kg 이상), 용기화물(226~997kg), 소형 용기화물(226kg 이하) 등 세 가지로 분류하며, 분류된 기준에 따라 크기가 다른 화물낙하산을 장착합니

다. 무게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격을 방지하고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허니컴'이라는 충격완충재로 에워싸게 되는데, 화물 무게에 따라 사용되는 허니컴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화물의장작업은 정밀함을 요하는 작업으로, 보통 차량 1대를 의장하는데 공정화물의장사 4명이 작업해도 5시간 이상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32주 교육 수료 후 공정화물의장사 근무

대한민국 공군 내에 공정화물의장사는 2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문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사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임관한 부사관 중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해 32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공정화물의장사라는 직책을 부여받게 됩니다.